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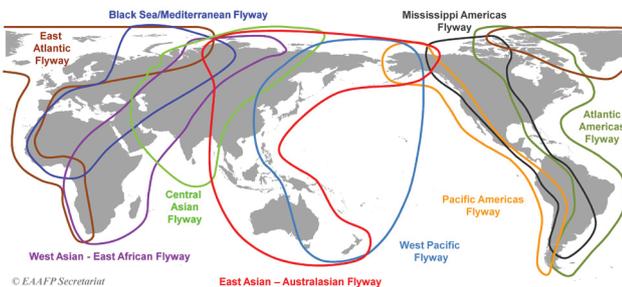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란?

매년 물새들이 이동하는 경로를 **철새이동경로**라고 한다. 전세계적으로 9개의 큰 철새이동경로가 존재한다.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 (East Asian-Australasian Flyway, EAAF)는 러시아 극동지방과 알래스카에서 남쪽으로는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오스트랄리아, 뉴질랜드까지 22개국을 지나며, 멸종위기종 철새 32종과 취약 멸종위기종 19종을 포함한 250여 종 약 5천만마리가 서식하고 있다. 이동과정에서 물새들은 다음 비행에 대비할 힘을 축적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습지대에서 휴식하고 먹이를 섭취한다. 따라서 이동물새들과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들의 이동범위 내에 있는 지역들사이의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는것이절실히 필요하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여거지는 종들 중 일부의 서식지로 되고 있다. 두루미는 신도, 문덕, 룡연과 9.18 저수지 철새 보호 구역(Sindo, Mundok, Ryongyong, and September 18 Reservoir Migratory Bird Reserves)에서 서식하며 먹이를 섭취한 후, 중국, 몽골, 러시아 등으로 이동한다. 조선의 서해안은 멸종 위기에 처한 저어새의 번식지이며, 조선에서는 저어새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있다.



조선의 이동물새

조선은 수많은 이동물새들이 이동하는 과정에 필요한 여러가지 편의를 제공하는 지역으로 되고 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서 가장 취약한 종으로

조선의 습지대

이동물새들은 번식, 휴식, 먹이를 위해 이동경로에 있는 습지대에 서식한다. 현재까지 조선은 총 24곳의 보호구역을 지정해놓았다. 그 중 몇곳은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로 상당한 수의 철새종이 서식하고 있으며, 이동 물새와 그들의 생존을 위한 서식지를 보존하는데서



국제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되고있다. 철새가 이동하는 중요한 지역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하는것이 중요하다. 특히 조선에서는 재두루미와 흰목검은두루미, 저어새가 서식하는 서해안의 작은 섬들에 보다 각별한 관심을 돌리고 있다.

라선 철새보호구역

라선 철새보호구역은 만포, 동번포, 서번포 (Manpo, Dongbonpo, Sonbonpo) 등 세 호수와 논, 그리고 언덕 등으로 구성된 습지대다. 이 지역은 현재 라선 경제무역지대의 관광기반시설과 양식어장 등이 빠른 속도로 건설되고 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보호구역을 보전하는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최근 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와 한스 자이델 재단의 협력하에 동북아 환경협력계획 (NEASPEC) 에서 진행한 조사 보고서는 라선 철새보호구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주요 철새종과 멸종위기 철새종에 관한 정보를 담고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구역은 람사르협약에서 정한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분류하는 기준에 맞으며, 철새 개체군의 1% 이상이 머무를뿐아니라 국제적으로 멸종위기에 처한 이동물새가 서식한다.

라선 철새보호구역을 조사하는 동안 많은 수의 철새들이 확인되었으며, 그 중에는 동아시아의 흑고니 *Cygnus olor* 개체군의 7%와 취약 멸종위기종인 붉은꼭두오리 *Anas falcata*, 그리고 붉은머리오리 *Anas Penelope* 의

Overview and Location of Ra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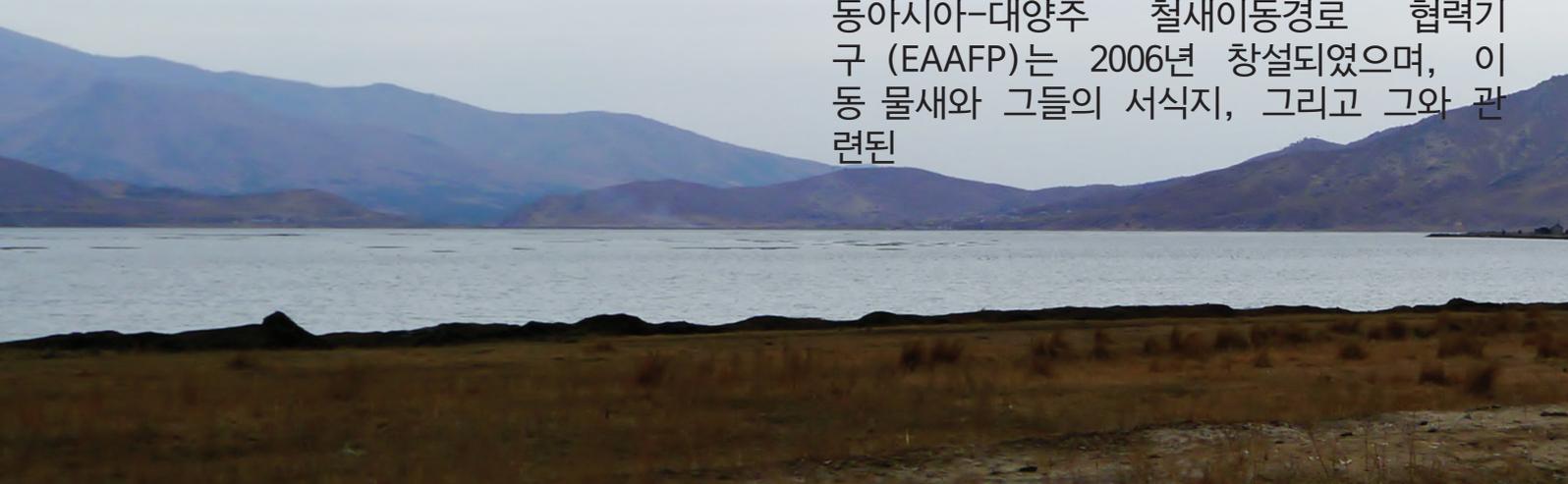
(Source: Google Map)



다수가 서식하고 있었다. 또 알락꼬리마도요 *Numenius madagascarensis* 와 붉은어깨도요 *Caldris tenuirostris*, 바다꿩 *Clangula hyemalis*, 흰목검은두루미 *Grus monacha*, 재두루미 *Grus vipio*, 고대갈매기 *Ichthya relictus*, 취약 멸종위기종인 메추리 *Corturnix japonensis*, 검은머리멧새 *Emberiza yessoensis* 도 서식하고 있었다. 이에 2018년 람사르 체계에 공식적으로 포함되었다.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협력기구 (EAAFP)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협력기구 (EAAFP)는 2006년 창설되었으며, 이동 물새와 그들의 서식지, 그리고 그와 관련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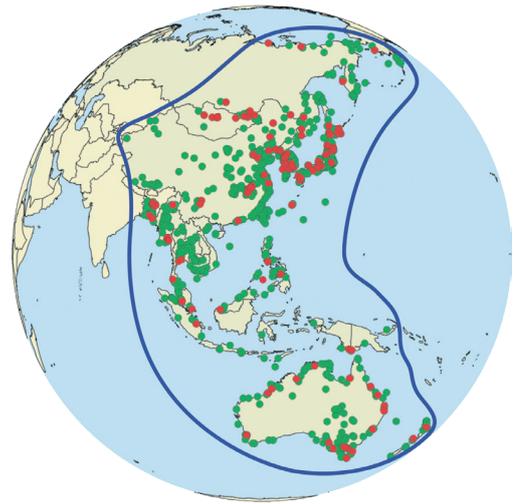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려고 한다. 이 협력기구는 모든 차원의 정부, 현장 관리원, 다국적 환경조약, 기술적 기관, 국제연합 기구, 개발기관, 산업 및 개인, 과학자, 비정부기관, 지역단체와 지역 사람들을 포함하여 이동경로에 존재하는 다양한 리해관계를 가진 대상들 간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에서 생활하는 사람들과 생태 환경 모두를 고려하면서 이동물새와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고자 한다. 현재 조선을 포함한 18개국과 6개의 정부 기관, 12개의 국제 비정부기관 (NGO), 그리고 1개의 국제 민간 기업 등을 포함하여 37개의 협력기관들이 함께 활동하고 있다.

철새이동경로지역체계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협력기구 (EAAFP)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이동경로의 지역체계를 구축하는 일이며 이 국제적인 지역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당 이동경로내의 이동물새의 생존을 장기적으로 보호하는 것이다. 협력기구 지역체계는 이동물새 서식지 간에 조류종과 개체수를 공유하기 위해 호상연계를 보장하려고 한다.

이동경로 지역체계는 해당 지역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보장한다. 조선에서는 협력을 시작하기전에 특별한 조류종의 이동경로 지역 체계에 참가한적이 있었다. 조선의 2 지역, 금야습지 보존지 (EAAF044)와 문덕습지보존지 (EAAF045)는 이미 도요새, 백조, 오리와 거위 등의 기존체계 중 하나인 '동북아시아 두루미서식지체계'의 일부로 되었으며, 이후 EAAFP 지역체계에 포함되었다.



Flyway Network Sites²

2 지역 모두 이동물새의 서식지로서의 국제적기준에 부합된다. 현재 1,000곳이 넘는 습지대가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면 22개국에 걸쳐 144곳의 습지대가 이동경로지역망에 포함되었다.

활동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협력기구 (EAAFP)는 이동물새와 그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전문지식을 공유하며 리해 증진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계획하여 지원하고 있다. 그 활동은 다음과 같다.

조사위원회 WORKING GROUPS

조사위원회는 이동경로 협력기구의 활동계획을 이행하는데 있어서 자문과 지원을 한다. 각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구성원들의 지명으로 지정된다.

현재 7개의 조사위원회가 존재한다:



자매지역

- 오리과 조사위원회
- 조류 독감 조사위원회
- 두루미 조사위원회
- 바닷새 조사위원회
- 도요새 조사위원회
- CEPA (의사소통, 교육, 참여와 대중인식) 조사위원회
- 저어새 조사위원회

대책위원회 TASK FORCES

현재 7개의 대책위원회가 존재한다:

- 이동물새 개체수와 서식지 감시
- 황해 생태지역
- 아무르강-흑룡강 지역
- 주걱부리도요
- 호사비오리
- 푸른머리흰쭈지오리
- 알락꼬리마도요

국가 협력기구

EAAF 협력기구는 국가적 차원의 이동경로 지역 체계 강습을 장려하는바, 이는 정부의 지원과 도움을 받아 각 지역의 현장관리자들이 국제적으로 협의 된 지침 (람사르 습지 관리 지침 등)에 따라 지역관리계획을 발전시키고 실행할수 있도록 하기 위한것이다. 따라서 관리자, 관리기구, 전문가 간 대화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국가적인 장치를 마련할것을 권장한다.

자매 지역과 EAAF가 제공하는 기타 협력활동들은 이동경로 지역체계내의 다른 지역들과 연계하여 공통종에 관한 공동연구를 진행하거나 정보와 경험을 교류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현장일군들로 하여금 지역관리계획을 보다 효율적으로 발전 및 실행할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시켜 줄것이다.

EAAFP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웹사이트 www.eaaflyway.net 참조, 메일 secretariat@eaaflyway.net 으로 질문 가능

사진

재두루미 : Robin Newlin

디자인/편집

David Broughton, Joohee Lee, Haejin Park, Jiyae Yim

Published by

EAAFP Secretariat and Hanns Seidel Foundation

